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대구 시민의 태도 및 의식조사 연구

오승현 · 엄봉훈*

예전조경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Attitudes & Cognition of Daegu City Residents towards Green Tourism

Seung-Hyun Oh · Boong-Hoon Eom*

*Yejeon Landscape Architecture · *Dept of Landscape Arch., Catholic Univ. of Daegu*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ity residents' attitudes and cognition of Daegu City toward Green Tourism.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06. The sum of 515 copies was analyzed. City residents recognized the problems of leisure activities as 'burden of expense', 'lack of program diversity' and the advantages of this as 'withdrawal of stress and increase of vitality', 'promotion of health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Among theme experiential activities, they preferred 'health/leports experience' 'traditional food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nature-ecological experience', respectively. By the result of cross-table analysi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gender & age. Therefore, further development of specific experiencing activity programs and marketing techniques, are required.

Key words : Green tourism, City residents' attitudes, Daegu City, Experiencing activities

1. 서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수행학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영향으로, 체류형, 체험형 관광의 확대 및 여가계층 확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웰빙' 열풍에 따른 생활의 질 향상과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금생활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여가 및 관광 수요가 팽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민의 관광·휴양의 경향에 있어서도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기존의 관광지나 리조트에서 느끼는 인공적인 휴양환경과 번잡함을 피해, 농촌에서의 휴식과 자녀를 위한 자연환경 체험 및 환경교육 차원에서 이용행태, 즉 그린투어리즘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첫째, 개념소개와 이론고찰 및 정책도입을 위한 연구들, 둘째, 외국사례 소개, 셋

째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 연구, 넷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민들의 태도, 의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면적 연구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공급자 입장에서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들로 유형화 할 수 있다(엄봉훈(2006)). 본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이용자 수요 측면, 즉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연구에 국한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의식조사 연구는 약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범수, 이주희(1997)는 농산촌에 있어 그린투어리즘의 전개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써 농촌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를 보고한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산촌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친자연적인 그린투어리즘의 도입과 추진의 필요성에 입각한 의식조사 결과,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보전과 정비 수법의 개발, 수용자로서의 농산촌 주민의 의식향상과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용근, 유기준 외(2001)는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시민의 의

Corresponding author : Eom, Boong Hoon
Tel : 053-850-3189
E-mail : bheom@cu.ac.kr

식조사를 행하였는데, 여가활동의 문제점으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 ‘이용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등을 들고, 여가활동의 이점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활력 증가’, ‘타인 및 가족 친분 증대’, ‘건강 증진’ 등의 친환경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자연체험형 관광활동 증대’를 예측하고 있으나, 아직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과 경험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홍성권, 김성일(2002)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를 규명한 바 있는데,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참여의도 차이는 없다는 것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해도가(4.3%) 극히 낮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농촌생활연구소(2003)의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보고된 조복환 외(2003)의 인터넷 이용자의 녹색관광 요구분석에서는 농촌관광활동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녹색관광 종류, 체류시간, 등을 조사·보고하였는데, 청정지역 농업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자연친화적 숙박시설의 보급, 녹색관광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녹색관광정보의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림부(2004)에서 발간된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 보고서’에서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경험이 10%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주로 5월과 7,8월에 집중되고 있고, 주로 가족단위 위주로 이용하며, 편의시설 불량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희망지역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농촌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민을 농촌관광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촌관광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시장 지향적인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함석중, 김숙희(2005)는 그린투어리즘의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수요측면에서 소비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이해하고 의사결정과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의 수요 주체자인 도시민의 관광태도 및 그린투어리즘의 지향성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린투어리즘 태도에 자연지향, 문화지향, 건강지향 인자가 작용함을 검증하고, 인구학적, 사회 계층적 변인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향이 달라지므로, 농촌관광 개발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 도시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 수요측면의 의식조사 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영남지역의 거점도시인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측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대구·경북 지역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체험활동별 선호도 등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수요계층인 대구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계층별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그린투어리즘의 수요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영남지역 거점도시인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표본 집단은 대구시의 구별 인구수와 성별인구수를 기준으로 층화표집 배분하였다. 배분된 지역별로 할당된 성인 남녀 20여명을 조사원으로, 조사원 자신과 주위 지인들에게 임의 배포된 설문지 총 600부를 배포하여 560부를 회수 하였다. 회수율은 93.4%였고, 이중 45부는 기재 오류로 집계에서 제외하고 총 515부를 자료집계에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신상사항 부문과 의식조사 부문으로 나뉘며, 의식조사 부문은 다시 여가활동에 관한 부문과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부문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먼저 신상조사 부문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직업, 학력, 자녀의 수, 월평균 소득의 7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의식조사 부문은 먼저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으로, ‘여가활동의 문제점’, ‘여가활동의 이점’, ‘여가활동의 만족정도’ 등 3가지 질문을 설정하였고, 여가활동 여행에 관련해서는, ‘여행정보 취득원’, ‘여행계획 시 결정자’ 등 2가지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인식정도’, ‘그린투어리즘의 경험유무’, ‘그린투어리즘의 목적’, ‘그린투어리즘 계절별 선호도’, ‘그린투어리즘 여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등 5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여가활동 및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조사 부문에 대한 자료는 각 문항별로 예시된 명목척도 자료를 1,2 순위로 선택하게 한 다음, 이를 순위별 가중

평균(1순위는 2배, 2순위는 1배)으로 환산한 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집계 및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신상사항과 여가 및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에 관한 자료를 빈도분석을 행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의식과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신상사항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시민의 구성은 남녀 515명 중, 여자가 338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고, 남자가 177명으로 34.4%로 여자 그룹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가 27.9%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고, 이어서 40대가 26.6%로 20대와 비슷한 구성비를 보였으며, 30대와 50대 이상, 10대가 19.1%와 17.7%, 8.7%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업별 구성은 주부와 학생이 전체의 35.3%,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무직, 관리직, 자영업 등 직장인이 29.3%를 차지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대학생 22.3%, 고졸 16.7%, 중졸이하 7.4%, 대학원 이상 6.0%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설문에서 가구당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질문한데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주부와 학생이었으므로 200만원 이하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200-300만원 이하, 300-400만원 이하, 400-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 각각 21.7%, 15.3%, 7.4%, 6.6%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임의배포에 따른 결과, 여성과 주부 및 학생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모집단인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

가. 여가활동의 문제점

‘도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32.9%가 ‘비용부담의 과다’를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28.1%로 여가활동의 질적인 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다’ 12.5%, ‘자연과 접할 기회가

표 1. 응답자의 신상사항

구분		빈도수	%
성별	남	177	34.3
	여	338	65.7
연령	10대	45	8.7
	20대	144	27.9
	30대	98	19.1
	40대	137	26.6
	50대이상	91	17.7
직업	공무원/사무직	52	10.1
	전문직/관리직	63	12.2
	자영업/사업	24	4.7
	서비스업	12	2.3
	주부	182	35.3
	학생	138	26.8
학력	기타	44	8.5
	중졸이하	38	7.4
	고졸	86	16.7
	대학생	115	22.3
	대졸	245	47.6
소득	대학원 이상	31	6.0
	200만원 이하	242	47
	200-300만원 이하	112	21.7
	300-400만원 이하	79	15.3
	400-500만원 이하	38	7.4
500만원 이상	34	6.6	

적다.’ 11.5%,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심하다.’ 9.8%, ‘교육적 효과가 적다.’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김용근외:2001)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의 심각성’(85% 긍정)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고, 이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다’(77% 긍정) 즉, 혼잡도와 ‘이용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67% 긍정)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인식은 그 비중이 줄어든 대신, 여가활동에 있어 ‘비용 부담의 과다’를 현저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며, 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여가활동의 하나인 그린투어리즘의 적극적 도입과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2. 여가활동의 문제점

	빈도수	%
비용 부담 과다	169	32.9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144	28.1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다	64	12.5
자연과 접할 기회 부족	59	11.5
자연생태계 파괴 심하다	50	9.8
교육적 효과 적다	23	4.4

나. 여가활동의 이점

여가활동에 따른 이점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생활 활력 증가’를 전체의 43.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생활 속에서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바빠 살아가는 도시민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 24.7%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현대인들의 의식 또한 알 수 있다. ‘가족과 타인과의 친분 증대’를 12.8%, ‘자연환경의 체험과 교육효과를 위함’이 11%, ‘자기반성 및 발전의 기회를 위함’이 7.8%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김용근외:2001)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연환경 체험과 교육효과’에 대한 순위가 ‘자기반성 및 발전의 기회 제공’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한다. 즉 최근의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자연체험 및 교육학습 위주의 여가활동의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3. 여가활동의 이점

	빈도수	%
스트레스 해소, 생활 활력 증가	225	43.6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	127	24.7
가족 및 타인과의 친분 증대	66	12.8
자연환경의 체험과 교육효과	57	11.0
자기반성 및 발전의 기회 제공	40	7.8

다.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란 응답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만족’이 19%, 및 ‘불만족’ 33%로 나타났다. 2001년의 기존연구(김용근 외)에서 ‘보통’ 41.8%, ‘만족’ 19.9%, ‘불만족’ 38.3%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있어 내용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표 4. 여가활동 만족도

	빈도수	%
불만족	55	10.7
약간 불만족	115	22.3
보통	247	48.0
만족	98	19.0

라. 여행정보 취득원

여가활동과 관련한 여행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31.2%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고 응답을 하였고, 이어 ‘인터넷/PC’ 27%, ‘TV/라디오’ 19.4%, ‘신문/잡지’ 15.4%, ‘관광 안내책자’ 3.5%, ‘홍보책자’ 2.9%로 나타났다. 기존연구(함석중, 김숙희:2005)에서 ‘인터넷/PC’가 37.7%, ‘주위 사람들’이 29.4%로 나타나, 본 연구 설문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살펴보면 예전과는 달리, 활자화 된 정보(신문이나 잡지 등)보다는 주위사람들과 인터넷/PC 등을 통해 여행정보를 많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여행정보 취득원

	빈도수	%
주위사람들	161	31.2
인터넷/PC	139	27.0
TV/라디오	100	19.4
신문/잡지	79	15.4
홍보책자	15	2.9
관광 안내책	18	3.5

마. 여행계획 시 결정자

‘여행을 계획할 때, 주로 누가 결정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배우자 혹은 친구/연인이 공히 20.3%로 그 다음으로, 가족/친지가 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기타 의견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김범수, 이주희(1997)가 가족 내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가장 및 집안의 웃어른’의 누적치가 67.4%로 나타나 의사 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고했던 것에 비해,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린투어리즘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가부장적 의사결정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여행계획 시 결정자

	빈도수	%
본인	169	32.8
배우자	105	20.3
친구/연인	105	20.3
가족/친지	92	18.0
모임회장	19	3.7
직장동료	12	2.3
기타	10	2.0

3.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

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정도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 오늘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85.3%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조금 안다’고 응답한 14.7%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용근 외(2001)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57.7%가 그린투어리즘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24.9%가 ‘보통’, 1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함석중, 김숙희(2005)의 보고에서도 그린투어리즘을 오늘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 그린투어리즘을 조금 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1%의 결과를 보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정도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그린투어리즘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인식되는 단계에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7. 그린투어리즘 인식정도

	빈도수	%
오늘 처음 들음	297	57.7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 모름	142	27.6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조금 안다	67	13.0
매우 잘 알	9	1.7

나. 그린투어리즘 경험 유무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한 적 있는가’란 질문에 전체의 79.8%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20.2%가 ‘경험한 적 있다.’라고 응답했다. 김용근 외(2001)에서는 전체의 87.1%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10%가 ‘경험한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

전보다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인식정도와 경험유무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인지정도도 낮게 응답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설문 응답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사람들이 래프팅을 즐기고, 별 관찰 여행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만약, 설문지의 문항에 ‘그린투어리즘’이 아닌, ‘농촌체험관광’이라는 말로 바꾸어 물어보았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며, 도시민들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8.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

	빈도수	%
없다	411	79.8
있다	104	20.2

다. 그린투어리즘 참여 목적

‘그린투어리즘 참여 목적’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린투어리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경험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목적을 응답케 하였다. 그 결과, ‘건강/레포츠 체험’이 29.2%로 가장 높았고, ‘농촌생활 체험’ 22.0%, ‘전통문화체험’ 20.4%, ‘자연학습, 생태관찰 체험’ 20.2%, 등이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단체연수’는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린투어리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그린투어리즘 목적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집단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그린투어리즘 목적

	빈도수	%
건강/레포츠 체험	150	29.2
농촌생활 체험	113	22.0
전통문화 체험	105	20.5
자연학습, 생태관찰 체험	104	20.3
단체 연수	40	7.8

라. 그린투어리즘 계절별 선호도

‘그린투어리즘 계절별 선호도’의 질문에 35.7%로 가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름 28.5% 및 연중 17.7% 와 봄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김범수, 이주희:1997)에서는 5월 달에 대한 방문 희망이 21.6%로 가장 높고, 이어서 9월들은

17.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3월에서 5월 사이의 춘계방문 희망이 41.9%로 하계와 추계의 구성비, 각각 25.9% 및 25.1%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계는 7.1%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즉, 방문 희망 시기는 농업활동이 활발한 춘계 4월과 5월 및 일반적인 휴양활동의 성수기인 7월에서 9월까지로 분산되고 있었다.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계절별 선호도의 수치적인 면은 차이가 있지만, 봄, 여름과 가을을 선호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봄, 여름과 가을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연중 내내 사람들이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10. 그린투어리즘 계절별 선호도

	빈도수	%
가을	182	35.7
여름	147	28.5
연중	91	17.7
봄	70	13.4
겨울	18	3.3

마. 그린투어리즘 개선 필요성

‘그린투어리즘 여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중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첫째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의 필요성’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숙박,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21.7%, ‘주변지역 자연, 문화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20.3%, 그 외에 ‘도시와 농촌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확대의 필요성’, ‘환경 친화적 농업(유기농법)으로 전환 필요성’, ‘농촌 주민의 정과 훈훈한 인심 회복 필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산어촌 지역의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11. 그린투어리즘 개선 필요성

	빈도수	%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148	28.7
숙박,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112	21.7
주변 자연, 문화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104	20.3
도시와 농촌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확대	68	13.2
환경 친화적 농업(유기농법)으로 전환	47	9.2
농촌 주민의 정과 훈훈한 인심 회복	32	6.1

사.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는 먼저 ‘건강/레포츠/기타체험’과 ‘전통음식체험’이 각각 24.8%, 2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전통문화체험’ 19.1%, ‘자연생태체험’ 18.2%, ‘농산어촌생활체험’ 1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해 본 응답자와 그렇지 못한 응답자를 비교했을 때,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선호도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표 12.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빈도수	%
건강/레포츠/기타 체험	127	24.8
전통음식체험	116	22.6
전통문화체험	99	19.1
자연생태체험	93	18.2
농산어촌생활체험	77	14.8

4. 교차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즉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 ‘그린투어리즘 경험유무’ 등의 변수들과 여가활동 및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 변수들인 ‘여가활동 문제점’, ‘여가활동 이점’, ‘여가활동 만족도’, ‘그린투어리즘 목적’, ‘그린투어리즘 개선 필요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등의 변수들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성별, 연령대, 그린투어리즘 경험 유무에 따른 의식조사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령대	경험유무
여가활동 문제점	5.762(5) .330	36.374(20) .014*	8.738(5) .120
여가활동 이점	2.997(4) .562	96.280(16) .000*	9.855(4) .043
여가활동 만족도	1.730(4) .785	35.383(12) .004*	10.683(4) .030*
그린투어리즘 목적	14.567(4) .006*	37.224(16) .002*	2.762(4) .598
그린투어리즘 개선필요성	31.886(5) .000*	81.288(20) .000*	8.406(5) .135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37.356(4) .000*	57.171(16) .000*	4.975(4) .290

* 상단은 카이제곱 값(자유도)이고, 하단은 유의확률(* p<0.05)

먼저, 성별 변수는 '그린투어리즘의 목적', '그린투어리즘의 개선 필요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등의 변수들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변수는 의식조사 항목 변수들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투어 경험유무' 변수는 '여가활동의 이점'과 '여가활동 만족도' 변수와 유의한 상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의성이 높은 상호 관계를 갖는 변수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을 교차분석 한 결과, 남자는 '건강/레포츠 체험'을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촌체험'은 19.8%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여자는 '농촌체험'이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주부들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농촌체험 형태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개선 필요성' 변수는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의 필요성'이 남자는 26.7%인 반면, 여자는 43%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결과를 보면, 남자는 역시 '건강/레포츠/기타 체험'이 45.8%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27.2%가 '전통음식체험'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레포츠/기타 체험'은 25.1%에 지나지 않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지만, '전통음식체험'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이점'은 10대에서 30대는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의 활력 증가를 위함'이 각각 5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40,50대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 각각 44.5%와 44.0%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모든 스트레스 해소 등,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성향이 큰 것에 비해, 4,50대 중년층은 가족과 건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0대와 50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5.6%, 23.1%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각각 41%, 42.9%로 청장년층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10대와 20대, 30대는 '건강/레포츠/기타 체험'이 42.2%와 43%, 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31.8%, 36.6%로 '농촌체험'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연령 계층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그린투어리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0,20대 젊은 층은 '숙박,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35.6%, 34%로 선택해 개인적 이용편의를 추구한 반면, 30대에서 50대는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32.7%, 44.9%, 52.2%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다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녹색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촌에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용주체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여가활동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비용부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사람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 활력증가'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삭막해진 시대에 '가족 및 타인과의 친분 증대' 등을 여가활동의 중요한 이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이점을 고려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도입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아직까지 그린투어리즘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85.3%를 차지하는 등, 그린투어리즘 인지도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식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교차분석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남성은 건강/레포츠 체험을, 여성은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그린투어리즘 활동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에 따른 여가활동 이점으로, 10-30대는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활력증가를 위함이라고 응답하였고, 40-50대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라고 응답하는 등,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이 인구학적 계층별로 현저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목표시장 지향적이고 세분화된 마케팅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시민, 즉 1개 도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과 표본 집단의 임의성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대구·경북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 둘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식 향상을 위한 인터넷/PC나 매스컴을 통한 활발한 홍보 활동 전개, 셋째, 그린투어리즘 이용자들이 사계절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이용자 계층별 수요분석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신겸(2002) 마을단위 녹색관광개발의 추진과 과제, 농촌관광연구, 9(1) : 118-137.
2. 김범수, 이주희(1997)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3.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3) : 183-199.
4. 김성일, 홍성권, 이태희(2001) 퀴조인트 선택모델을 통한 녹색관광 선택행동, 관광학연구, 25(1) : 215-231.
5. 김용근, 유기준 외(2001) 도시민 의식조사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성화 방안, 농촌관광연구, 8(2) : 17-31.
6. 농촌생활연구소(2003a) 녹색관광 실태 및 선호도 조사, 158p.
7. 농촌생활연구소(2003b)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녹색관광자원 이용연구, 465p.
8. 류선무 외(200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한 고찰, 농촌관광연구, 8(1) : 1-15.
9. 엄봉훈(2006)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2(4) : 125- 133.
10. 조록환, 외(2003) 인터넷 이용자의 녹색관광 요구 분석,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57-159.
11. 조용기(1999) 녹색관광의 태동과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11 : 73-85.
12. 함석중, 김숙희(2005) 수도권 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태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19(3) : 147-162.
13. 홍성권, 김성일(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30(1) : 18-28.

* 접수일 : 2007년 11월 6일

■ 3인 익명 심사필